

2026. 6. 16

# AI의 글로벌 성장 효과에 대한 세계은행 시각<sup>1</sup>

권혁우 | 연구원(3705-6057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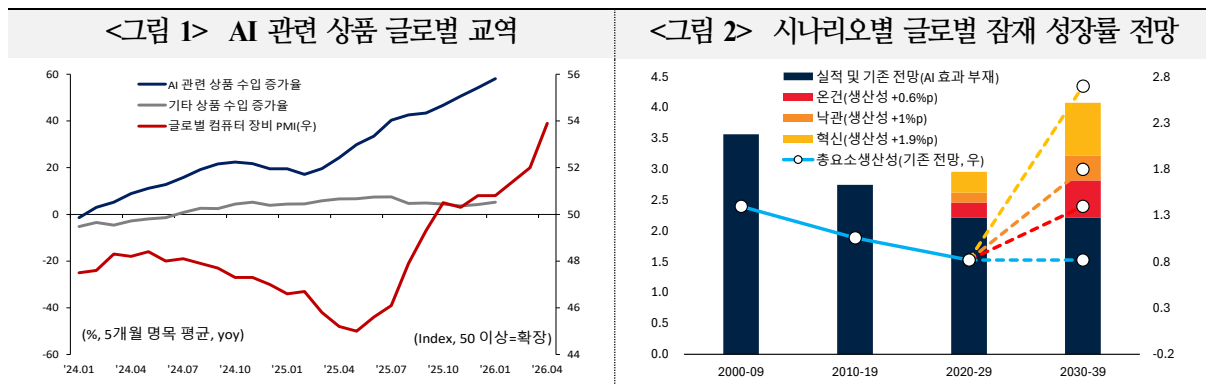
박미정 | 글로벌경제부장(3705-6210)

- [이슈] 중동전쟁 충격 속에서도 글로벌 성장세를 지지한 대규모 AI 투자 강세가 장기적이고 광범위한 잠재성장 효과로도 이어질 지에 대한 관심이 증대
  - ⇒ 세계은행은 글로벌 경제전망 보고서\*를 통해 AI의 글로벌 성장 효과에 대한 전망을 제시
- [성장효과] AI 도입의 생산성 효과가 극대화(10년간 최대 2.7%)될 경우 향후 글로벌 잠재 성장률은 과거 수준의 회복을 넘어 1970년대 이후 가장 강한 성장세 (2.5%~4.1%)를 보일 가능성 존재
- [제약요인] 다만 기술 범용성, 확산 속도 등 성장 효과에 불확실한 요소가 상존하고 국가간 생산성 수혜의 정도가 달라 성장 효과가 차별화될 가능성
- [시사점] 정책적 개입 없이 신흥국, 개발도상국의 AI 생산성 개선과 그에 따른 성장세 개선은 기대하기 어려워 선진국과 차별화된 방식의 투자 지원이 필요

※ [참고] 세계은행 글로벌 성장 전망(26.6.11)

## □ [이슈] 중동전쟁 충격 속에서도 글로벌 성장세를 지지한 대규모 AI 투자 강세가 장기적이고 광범위한 잠재성장 효과로도 이어질 지에 대한 관심이 증대

- (AI의 성장 효과) 세계은행은 '26년 글로벌 성장 전망(2.9%, 1월 대비 -0.3%p, PPP)에서 AI 인프라 투자 강세를 중동전쟁에 따른 유가 충격을 완충한 주요 요인으로 지목
  - AI 투자와 그에 따른 반도체 등 핵심 투입재 교역 증가는 중동전쟁 충격에도 불구하고 양호한 글로벌 성장세를 지지했으며 향후 전망에도 주요 상방 리스크로 상존(그림 1)
    - 이러한 투자 수요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련 상품 무역을 지지하며 관세로 인한 선제적 수입 정상화, 중동전쟁에 따른 교역 차질 등의 역풍을 상쇄할 전망



자료: 세계은행

자료: 세계은행

주: 점선은 시나리오별 전망치

<sup>1</sup> World Bank. 2026. Global Economic Prospects, June 2026. Washington, DC, p.8

- [성장효과] AI 도입의 생산성 효과가 극대화(10년간 최대 2.7%)될 경우 향후 글로벌 잠재 성장률은 과거 수준의 회복을 넘어 1970년대 이후 가장 강한 성장세(2.5%~4.1%)를 보일 가능성 존재<그림 2>
- (생산성 개선) AI 확산에 따른 글로벌 생산성 증가율은 기존의 하락세('00년대 1.4%→'10년대 1.1%→'08% 기준 전망)에서 반등해 향후 10년간 시나리오(온건, 낙관, 혁신)에 따라 최소 1.4%에서 최대 2.7%까지 확대될 잠재력 존재
- 온건 시나리오(1.4%): 일부 과업의 자동화 난관, 도입 생태계 미비 등의 한계로 생산성 증대가 일회성에 그치는 경우를 가정
    - AI의 생산성 수혜가 미미한 비자동화 부문으로 소비, 고용이 이동하면서 비용이 상승할 경우 전체 생산성 개선이 제약될 위험이 있다는 신중론이 우세
  - 낙관 시나리오(1.8%): AI 역량이 거듭 향상되어 범용성이 높아짐에 따라 기술 활용이 광범위한 기업, 과업으로 확산되며 생산성이 지속적으로 개선
    - 현세대 생성형 AI의 인터페이스는 직관성이 높아 AI의 보급을 가속화시키고 연산 능력이 빠르게 향상되며 AI가 수행할 수 있는 과업의 복잡성과 정확도 역시 크게 개선
  - 혁신 시나리오(2.7%): AI를 활용한 과학적 발견, 공정 개선 가속화 등 AI가 새로운 기술 혁신을 촉진시키는 선순환으로 이어지는 경우
    - AI를 활용해 AI 자체가 개선(자기강화)되기도 하며 기술 혁신을 창출하는 지식노동자와 공정의 효율성을 책임지는 생산관리자의 업무 효율이 확대
- (잠재성장률 확대) AI에 의한 총요소생산성 증가에 따라 글로벌 잠재성장률은 지난 30년간의 구조적 둔화세로부터 반등해 '00년대 수준을 상회할 가능성 잠재
- 글로벌 잠재성장률(기준 전망 2.2%)은 선진국의 생산성 향상을 중심으로 장기간의 둔화 추세가 역전되며 향후 10년간(~'39년) 2.5%에서 최대 4.1%까지 확대 가능
    - 글로벌 잠재 성장률은 '00년대 이후 총요소생산성이 둔화되며(약 40% 기여) 선진국부터 신흥국까지 전지역에 걸쳐 오랜 기간 하락세를 지속('00년대 3.6%→'10년대 2.8%)
  - 일부 초급 직무의 채용은 둔화될 수 있지만 노동 보완적 기술은 전체 노동수요를 증가시킬 수 있으며 일자리 매칭 개선에도 기여할 가능성 존재
    - AI 기술에 노출되는 일자리 비중은 선진국 약 60%, 신흥국 및 개발도상국 약 40%, 저소득 국가 약 26%로 추정

□ [제약요인] 다만 기술 범용성, 확산 속도 등 성장 효과에 불확실한 요소가 상존하고 국가간 생산성 수혜의 정도가 달라 성장 효과가 차별화될 가능성

○ (성장 효과 불확실성) 거시적 수준의 생산성 개선을 위해서는 신기술이 밀접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전기, 컴퓨터와 같이 넓은 범위에 적용될 수 있는 범용성이 필요

- AI 인프라 투자가 활발한 미국조차도 기술 확산세가 빠르지 않고(약 20%) 생산성 향상은 아직 고학력·화이트 칼라 직군의 정보처리, 인지적 과업에 국한

• 비숙련 직무(고객지원 상담원 +15%) 생산성 역시 AI 기술로써 개선되었다는 연구 결과가 있으나 대체로 도입률 및 생산성 향상 등은 일부 직군(지식노동자 등)에 집중

- 범용 기술에 의한 생산성 향상이 통상 장기(최소 10년 이상)에 걸쳐 발생, 평가되는 특성으로 전망의 시계가 매우 긴 점 역시 추정치의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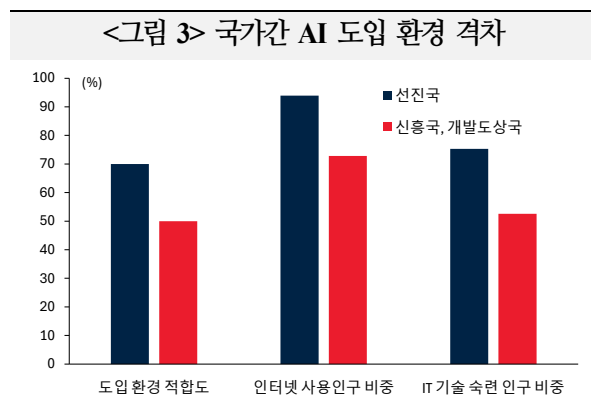
• 비교적 빠르게 확산된 것으로 평가되는 '00년대 ICT 혁명조차도 생산성 기여에 대략 10년(95~'05년, 약 0.5%p 기여)이 소요된 것으로 추정되며 1920년대 전기 보급은 수십년의 공장 재설계 등 인프라 구축 끝에 생산성 증가율에 약 0.9%p 기여

○ (불균등한 성장 효과) AI 인프라 투자가 활발한 선진국과 달리 신흥국, 개발도상국은 관련 물적, 인적 자본 수준이 미진해 생산성 수혜가 균일하지 않을 가능성 존재

- 신흥시장·개발도상국은 선진국 대비 물리적·디지털 인프라, 인적 자본, 제도적 환경 등 AI 활용에 적합한 환경을 갖추지 못해 성장 격차가 확대될 소지

• 소득이 낮을수록 ChatGPT 사용량이 낮고(저소득 1% 미만), 인터넷 이용 환경(저소득 국가 인터넷 이용자 비율 25%), 데이터센터 용량 등 전반적인 디지털 인프라가 취약

• AI 관련 기술을 보유한 인력의 채용 공고는 선진국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기본 이상의 디지털 역량을 갖춘 노동자 비중은 여전히 낮아 관련 교육 및 지원이 필요



자료: 세계은행

• AI 도입률은 전세계적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지역별 격차는 여전히 상당(25년 연내 증가폭 최고 +1.1%p 동아시아태평양~최저 +0.6%p, 아프리카)

□ [시사점] 정책적 개입 없이 신흥국, 개발도상국의 AI 생산성 개선과 그에 따른 성장세 개선은 기대하기 어려워 선진국과 차별화된 방식의 투자 지원이 필요

- (정책 제언) 대규모 초기 지출이 필요한 선진국 방식보다는 지역 환경에 특화되고 소규모 데이터셋을 활용하는 AI 스타트업 생태계 구축 등의 유연한 투자 유도를 제언
  - 세계은행은 소규모 농가를 대상으로 AI로 계산한 최적 비료 살포 시점 등을 SMS로 전송하고 지역 농민 명부를 기반으로 신용 대출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취약한 인터넷 사용 환경 속 작은 데이터셋 학습만으로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양한 스타트업 사례를 인용(Small AI)

[참고] 세계은행 글로벌 성장 전망(26.6.11)

□ 세계은행은 중동전쟁에 따른 에너지 공급 차질, 고물가에 따른 통화 긴축 등으로 '26년 글로벌 성장 전망을 2.9%로 하향 조정(1월 전망 대비 -0.3%p, PPP)

- (26년 전망) 해협 봉쇄에 따른 공급 차질(7월까지 지속 가정)로 에너지를 비롯한 주요 원자재 가격이 상승(26년 브렌트유 평균 배럴당 \$94 전망)하고 소비, 투자가 위축됨에 따라 글로벌 성장 전망을 하향 조정
  - '26년 성장 전망은 공급 차질이 기본 전망보다 악화될 경우 -0.4%p에서 -1.2%p(금융불안 가중)까지 추가 하향될 가능성
    - 선진국의 '26년 성장 전망은 1.5%(-0.3%p, 시장환율 기준), 신흥국 및 개발도상국은 3.6%(-0.4%p)로 모두 하향되었으나 국가별 에너지 취약성에 따라 넓은 범위에 분포
- (27년 전망) 7월부터 해협 봉쇄가 해제되면서 운송량이 연말까지 전쟁 이전 수준으로 점진적으로 돌아올 경우 내년 글로벌 성장 전망은 3.4%로 기존의 추세를 회복 가능할 것으로 기대

<표 1> 세계은행의 주요국 성장 전망				<표 2> 주요 기관의 글로벌 성장 전망 비교		
(%)	'25	'26	'27	(%, PPP 기준)	'26	'27
미국	2.1	2.2 (0)	2.1 (+0.2)	세계은행	2.9	3.4
중국	5.0	4.2 (-0.2)	4.3 (+0.1)	IMF	3.1	3.2
유럽	1.4	0.8 (-0.1)	1.3 (+0.1)	OECD	2.8	3.1
일본	1.1	0.7 (-0.1)	0.9 (+0.1)	주요 IB 평균	3.1	3.1
세계(PPP)	3.4	2.9 (-0.3)	3.4 (+0.1)	중간값	3.0	3.2

자료: 세계은행 주: 괄호는 1월 대비 변동폭(%p)      자료: 각 기관 주: IMF는 4월말, IB는 5월말 기준

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상업상 또는 다른 목적으로, 본 보고서 내용을 전재하거나 제 3자에게 배포하는 것을 금합니다. 국제금융센터는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  
문의: 02-3705-6057 혹은 hwkwon@kcif.or.kr, 홈페이지: www.kcif.or.kr